

뉴캐슬 잡은 이정호 “자신감 생겼다… 유럽팀 안 두려워”

(광주FC 감독)

쿠방플레이 시리즈 1경기 ‘팀 K리그’ 수석 코치 맡아 1-0 승리
“강호 상대해 지도자로서 배움… 선수들, 좋은 전술 입히면 승산”
광주FC, 새 외국인 선수 영입… 20일 부천과 코리아컵 1차전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웃은 이정호 감독이 “우리 선수들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방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팀 K리그’의 수석 코치를 맡아 에디 하우 감독이 지휘하는 뉴캐슬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K리그 올스타들을 이끌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를 만난 이정호 감독은 좋은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정호 감독은 “좋은 선수들과 같이 해서 기분이 좋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짧았는데 경기 전까지 선수들이 금방 전술을 이해했다. 그래서 신나서 경기를 했다. 선수들이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뉴캐슬 선수들도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그런지 압박이나 강도 이런 게 확실히 좋았다”고 뉴캐슬전을 평가했다.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 강호를 상대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이정호 감독은 지도자로서 배움과 자신감도 얻었다.

이정호 감독은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 광주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선수들도 분발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좋은 선수들 하고 해보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더 생겼다”며 “좋은 선수들에게 좋은 전술을 입히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리아컵이라든지 아챔이든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팀하고 붙어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유럽팀하고 붙는다고 해도 자신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에이스’ 아사니, ‘수문장’ 김경민, ‘국가대표’ 변준수 등 3명의 광주FC

선수들이 이정호 감독과 함께 했다. 이정호 감독은 제자들의 활약에 반색했다.

이정호 감독은 “어제 경기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변준수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다. K리그 센터백 어느 선수에도 뒤지지 않는다. 김경민 선수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보여줬다. 아사니는 유럽에서도 뛰는 알바니아 국가대표로도 이미 검증은 다 됐다. 우리 선수들 잘했다”며 “다른 광주 선수들도 기량이 더 많이 성장하면 좋겠다. 잘 성장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기량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선수가 된다면 더 쉽게 상대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빛나는 무대에서 기본 좋은 경험을 쌓은 이정호 감독의 시선은 다시 광주FC로 향한다. 코리아컵 우승과 리그 3위라는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10일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원정경기에 나서는 광주FC는 오는 20일에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코리아컵 1차전을 치른다.

이정호 감독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왔다. 새 선수가 왔으니까 박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옵션이 하나 생긴 것이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생각이다”며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 패턴을 더 연마해서 좋은 경기 하겠다. 선수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 연습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크로스, 슈팅, 터치, 패스, 킥 등 기본적인 걸 더 노력해서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방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 팀 K리그 김판곤 감독과 이정호(오른쪽) 수석 코치가 콜링 브레이크 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문장 김경민 “광주FC 승리 위해 전진”

조현우 이어 후반전 출격… “뉴캐슬 좋은 추억… 팀 목표 위해 뛸 것”

뉴캐슬전 승리를 지킨 ‘수문장’ 김경민이 “즐거웠다.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FC 골키퍼 김경민은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방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팀 K리그’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했다.

울산 조현우에 이어 1-0으로 앞선 후반전 출격한 김경민은 상대를 잘 분쇄하면서 팀 K리그의 1-0 승리를 지켰다.

김경민은 “워낙 다 훌륭한 선수들이니까 그냥 서포트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다. 즐겁게 하자는 생각으로 경기를 했다. 경기를 할 때는 연결도 해야 하고 집중을 많이 해서 다른 생각은 못했다”며 “워낙 상대 압박이 빠르다 보니까 선택을 빨리 해야 했다. 압박의 강도가 확실치 않았다. 그런데 그 좋은 선수들도 한국 날씨에 적응이 안 되니까 못 뛰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늦깎이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큰 무대를 경험했던 김경민은 올 시즌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팀 K리그로 뉴캐슬 공격진을 막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후배들에게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김경민의 묵묵한 걸음이다.

“골키퍼들이 잘하는 선수는 일찍 피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며 후배 골키퍼들의 도전을 응원한 김경민은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 광주FC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다”고 다음 걸음을 이야기했다.

김경민은 “이제는 K리그를 생각해야 한다. 뉴캐슬전은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가겠다. 남은 시즌 팀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0일 쿠방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 뉴캐슬 빌 오수라가 넘어지면서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안방서 충남아산 꺾고 승점 쌓기 정조준

K리그2 23R 내일 홈경기…이적생 르본·최한솔 활약 기대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2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충남아산FC를 상대로 K리그2 2025 2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선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38(10승 8무 4패·33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19라운드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던 전남은 20라운드 경남전도 1-0으로 마무리하면서 홈에서 연승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21라운드 수원전에서 3-4패를 기록했고, 앞선 성남 원정에서도 2골씩 주고받으면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상위권 목표를 위해 반등이 절실한 전남이다.

전남은 충남아산전 승리로 홈 연승을 잇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8월 한 달

홈에서 4연전을 이어간다. 이 중 3위 25라운드 부천전(승점 38·득점 38)을 제외하면 중화위권 팀들과의 대결이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영입한 전력들이 새로운 힘이 될 전망이다.

르본과 최한솔은 앞선 성남전에서 이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박수를 받았다.

후반 11분 교체 투입된 르본은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발디비아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다. 또 후반 37분에는 데뷔골을 장식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Man of the Match)’에 이름을 올렸다.

최한솔도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돼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골대 불운에 올랐지만 강력한 중거리 슈팅도 선보였다.

부상 복귀도 반갑다.

앞선 경기에서 정강민(U22)과 김경재가 각각 선발과 교체 멤버로 나서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장기 부상에서 회복한 이준과 호나노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안방을 찾는 충남아산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시즌 초 손준호, 한교원에 이어 이번 여름 김민혁과 최보경까지 K리그1 출신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다.

역대 전적에서는 전남이 6승 7무 5패를 기록하면서 충남아산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2승 2무 1패로 전남이 앞서 있다.

전남이 홈 4연전을 승리로 열고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가 강원FC에서 임대 영입한 최한솔을 앞세워 2일 충남아산FC와의 홈경기 승리에 도전한다. <전남드래곤즈 제공>